

박춘근 본부장에게 듣는  
제주지역본부가 꿈꾸는 미래

## 청정 제주, 산업기술의 허브로 도약하다



지난해 12월 23일, 제주 미래혁신산업 포럼이 개최됐다. 제주지역의 미래 신성장동력원 핵심기술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기업의 기술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개최된 행사에서 특히 주목할만한 점은 바로 생기원 제주지역본부의 설립이었다. 2013년도 제주R&BD협력단으로 시작해 제주 산업기술의 허브로 도약하고 있는 생기원 제주지역본부, 박춘근 본부장을 만나 제주지역본부가 그려나갈 제주의 미래를 엿보았다.

### Q. 제주지역본부의 소개 부탁드립니다.

생기원 제주지역본부는 지난 2013년 6월 제주 R&BD협력단 설립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2014년 생기원 제주지역본부 건립사업이 국회예결위 승인을 받으며 2015년 7월, 제주지역본부가 발족하였습니다. 제주대학교 내 부지에 2018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제주지역본부 건물이 공사 중에 있으며, 현재 저를 포함한 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역본부로서 완벽한 틀을 갖추진 못했지만, 제주R&BD협력단 설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제주지역의 제조 중소기업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한해 1,350만 명이 다녀가는 대표적인 관광도시입니다. 이에 따라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고, 풍부한 천혜 자원을 이용한 1차 산업이 약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2차 산업인 제조업은 4%에 그치고 있어, 제주 지역의 산업 구조가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생기원 제주지역본부는 1, 3차 산

업에 치우친 산업구조를 개선해 제조업을 활성화시켜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신성장동력산업을 발굴·육성함으로써 청정제주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제주지역산업의 글로벌화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 Q. 제주지역본부의 발전전략 비전은 '제주 산업구조 고도화 및 미래신산업 육성'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주의 산업분야를 살펴보면 먼저 제주의 자원을 이용한 직접적 산업과, 청정이라는 이미지를 통한 간접적 산업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 지역본부는 크게 두 가지의 연구 분야에 집중, 발전 전략을 세웠습니다.

제주지역본부의 발전전략 첫번째는 '제주산업구조 고도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주지역의 제조업은 비중이 4%로 매우 미비한 수준입니다. 제주 내 기업 중 제조업은 2,053개, 그 중에서도 5인 이상인 회사는 346개, 50인 이상인 회사도 12개에 불과합니다. 수치로만 봐도 제주지역 제조업이 얼마